

ICOH2015 업무회의 참가 및 기술협력 협정체결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4. 2.



- ICOH2015 업무회의 인사말 수행
- 1차 회의 [2013. 3. 4(월) ~ 3. 6(수), 서울] 이후의 추진 경과 보고
- 국내위원회 (조직 및 학술)에서 제기된 주요 안전 협의
- 주요 쟁점사안 안전 제시 및 결론 도출
- 기타 ICOH 2015 대회 준비를 위한 안전토의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MOMT :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ssion)와의 기술협력 협정 연장 서명 및 향후 협력사업 추진 관련 협의 등
-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MOLES :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와의 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향후 협력사업 추진 관련 협의 등

6. 출장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 '14. 2. 4(화)	○ 출국 (15:30 인천 → 자카르타 20:35)
○ '14. 2. 5(수)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MOMT)와 MoU 체결
○ '14. 2. 6(목)	○ 자카르타(13:05) → 방콕(16:35) ○ 방콕(17:55) → 양곤(18:40)
○ '14. 2. 7(금)	○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MOLES)와 MoU 체결 ○ 양곤(19:40) → 방콕(21:35)
○ '14. 2. 7(금) ~ 2. 8(토)	○ 방콕(09:05) → 헬싱키(15:15) ○ 최동식과장 귀국 : 방콕(09:50) → 인천(17:10)
○ '14. 2. 9(일)	○ ICOH Board Meeting 연설 및 업무회의 개최
○ '14. 2. 10(월) ~ 2. 11(화)	○ 귀국 (헬싱키 16:05 → 파리18:10/20:35→ 인천 15:25)

II. 출장 수행사항 세부내용

1. ICOH Board Meeting 참석

가. 2014 ICOH 이사회 및 학술위원회 총회 개요

- 일시 : 2014. 02. 09(일) 16:45~18:00
- 장소 : Hanasaari Center 1층 Astrid홀
- 참석 : ICOH 임원 및 이사회 회원, 학술분과위원회 회장 등 75명
ICOH 2015 대회 개최위원장 (공단 이사장), 배계완 협력지원
실장 및 직원 등 7명 총 82명
- 주요 내용
 - ICOH 2015 대회 개최위원장 인사말씀
 - ICOH 2015 대회 개최 준비상황 공유 및 향후 추진일정
 - 질의응답

나. 이사장 인사말씀 요약

- 2012년 멕시코 대회에서 대회 사무국을 이양받은 후, 공단은 대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차근차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3월, Kogi 회장 등 ICOH 위원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을 통해 ICOH 2015 대회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였음
- 공단은 이번 대회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산업 보건 수준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는 'Bridge'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회 직전년도인 올해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연동될 조기 등록과 초록접수, 심사 프로그램 개발과 후원사 선정, 공식 제휴 항공사 선정 등 보다 귀한 손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다. ICOH 2015 대회 사무국의 경과 및 계획 보고 (배계완 사무국장)

○ 1차 실무회의 이후의 추진경과

- 국제 및 국내 위원회 구성 완료
- 1차 안내서 개발 및 보급 (2013년 5월 7,500부 개발 및 보급)
- 공식 웹페이지 오픈 (2013년 5월)
- 대회 장소 사전 계약 (COEX, 행사별 장소 소개)

○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주요 행사 계획
 - 개회식 : 2015. 5. 31(일) 17:00~19:00 (COEX Hall D2)
 - 환영리셉션 : 2015. 5. 31(일) 19:00~21:30 (COEX Hall D1)
 - Korean Night : 2015. 6. 2(화) 19:30~22:00 (COEX Hall D2)
 - Gala Dinner : 2015. 6. 4(목) 19:30~22:00 (야외)
 - 병행프로그램 : APOSHO 30, 한중일 집담회, WHO-CC
(WHO-CC는 대회 전 제주에서, 그 외 대회 기간중 동시 운영)
- 특별세션 등의 적극적 참여 요청
 - 현재 84개 세션, 전차 대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구성
 - 200여 개의 세션이 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참여 요청
- 그랜트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에 대한 10만 유로 규모의 지원
 - 발표자에 대한 1, 2그룹 구분 지원
(1그룹 : 기조연설자 -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2그룹 : 세미기조연설자 - 숙박비, 등록비)
- 관광 프로그램
 - 한국 문화체험 : 고궁, 민속박물관 등 볼거리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
- 숙박
 - COEX 인근 도보 또는 5km 이내의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
- 향후 추진 일정 조정
 - 2차 안내서 : 2014. 04
 - 초록제출 : 2014. 08. 31

· 조기등록 : 2014. 09. 30

○ 주요 질의 및 요청사항

- 숙박시설관련, 호텔 뿐 아니라 학생 참여자를 위한 **유스호스텔 등 저렴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함께 올려주기** 바람
- 개발도상국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확대 요청
- 대회기간중 언론 기자회견도 동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ILO, WHO 등 주요 기관
- 향후 추진 일정관련, **조기 등록일이 2014. 09. 30인 것은 재고할 필요 있음.** 초록제출일이 2014. 08. 31이고 아직 논문 선정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라 참가자들이 참석 결정을 못하는 시점임. **발표자 선정이 끝난 시점과 조기 등록이 마감일이 일치하도록 조정** 제안함
(회신 : 논문 선정 일정이 2014. 11. 15임. 이 시기와 조기 등록 시한을 맞추면 다음 등록일 (2015. 01. 31)과 2개월여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조기 등록의 잇점이 없음. 더불어, 이제까지의 관례상 대부분의 참석자는 8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참석과 8월 31일 초록 접수 이후 참석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9월 30일로 조기 등록 마감일을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프로그램 일정상, 하루중 3시간의 휴식이 너무 길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듦. 휴식 시간을 줄여서 타이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안
(회신 : 1시간 30분의 기조연설 이후 세미기조연설과의 사이에 1시간 휴식은 불가피함. 이 시간을 통해 전시회나 포스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판단됨)
- 전시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요청
(회신 : 전시회는 50개 부스 정도로 소박하지만 실속있게 운영할 계획임. 공단과 ICOH, ILO와 WHO 등 파트너 기관에 대한 무료 부스와 차기, 차차기 대회 후보지에 대한 장소가 무료로 제공됨. 그 외, 산업안전과 보건 최신 트렌드를 알릴 수 있는 국제 기업 등을 섭외하여 볼거리 풍부한 전시회로 운영코자 함. 전시회 관람은 휴식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음)

- 세션 구성 관련, 200여 개 세션은 너무 많다. 세션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더불어, 포스터 세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회신 : 고품질의 다양한 세션이 대회 성공의 핵심이라 생각함. 각 학술분과회장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다시 요청함. 포스터세션도 당연히 함께 운영됨. 포스터 발표와 우수작 선정에 대한 시상식도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영될 계획임)

2. ICOH 2015 업무회의 주관

가. 2차 실무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4. 02. 07(금) 15:00~18:00 (Hanasaari센터 1층 Cornelis홀)
2014. 02. 09(일) 12:00~13:30 (Hanasaari센터 1층 Cornelis홀)
- 참석 (12명)
 - ICOH 대표단 (7명) : Dr. Kogi 회장, Ms. Lehtinen 부회장, Prof. Rogers 부회장, Dr. Iavicoli 사무총장, Dr. Petyx 사무처장, Ms. Valencia, Mr. Diowisi (ICOH 사무국 직원)
 - 공단 (5명) : 배계완 협력지원실장, 권종규 ICOH 2015 기획팀장, 진찬호 ICOH 2015 프로그램팀장, 심숙 과장, 이진수 과장
- 주요 내용
 - ICOH 2015 대회 사무국의 주요 추진 경과
 - 안전별 향후 추진계획 협의 등

나. 안전별 논의 사항

1) 추진 일정 조정

- 조기등록 : 2014. 09. 30
 - 이후의 등록 일정은 기존과 동일
(2015. 01. 31 → 2015. 04. 30 → 현장등록;
일일등록은 공식적으로는 홍보하지 않음)

- 초록접수 : 2014. 08. 31
- 논문선정 : 2014. 11. 15
- 선정자 발표 : 2015. 01. 15
- 2차 안내서 발행 : 2014. 4월중

2) 연설자 추천

- 기조연설자 추천
 - 2014. 3월초까지 3명선에서 발표주제와 함께 추천연사 제출
 - 추천된 인원을 토대로 대륙별, 주제별, 성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 ICOH 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됨
 - 기조연설자는 2차 안내서에 반드시 게재되어야 함
- ICOH 기조연설자는 주제와의 연관성이 깊은 사람이라야 하므로, KOSHA측의 목적(다소 정치적인)이라면 2일차 [2015. 06. 02(화)]에 세미기조연설시간 (11:00~12:45)에 세미기조연설없이 기조연설로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기조연설 주제 (11개 주제)
 - 나노기술 등의 혁신기술과 산업보건
(Innovative technologies and occupational health including nano)
 - 석면 (Asbestos)
 - 심리적 위험요인 및 1차 예방 측면
(Psychological risks and primary prevention side)
 - 노화 (Aging)
 - 독성 (Toxicology)
 - 근골격 질환 (Musculoskeletal disorder)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r small scale enterprises)
 - (산업보건분야) 정보독해력 등 우수 사례
(Good practice, including information literacy)
 -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 문화
(Occupational health culture at workplace)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산업보건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for occupational health)

3) 개회식 준비

○ 두 파트로 나뉘서 진행

- 환영사 : 대회장, ICOH 회장, 장관 등 각 연사 5분내외로 구성

- 오프닝렉처 : ILO, WHO 관계자 등 산업안전보건과 연관된 주제로 다소 긴 렉처 형식의 인사말

○ 전통공연 등 풍부한 볼거리로 구성하되, 2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구성

4) ICOH 사무국으로의 이전비용 지급

○ 대회는 한국 정부 예산으로 치루며, 등록비 전액은 정부로 귀속됨

따라서, 공단은 이익 창출이 아닌 더욱 많은 사람에게 대회 참여의 기회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등록비를 책정하였음

○ 이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ICOH 사무국에 이전되는 회원-비회원간 차액 (\$100)은 인당 차액보다는 전차 대회 수준의 총액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함

○ 대회마다 참가 인원 및 상황이 달라서 전차대회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겠지만 전차대회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ICOH 사무국과 추후 다시 협의하겠음

5) 프로그램 개발

○ 등록 프로그램

- 전차 대회 (30회, 멕시코 칸쿤) 프로그램 구조를 참고해서 데모 버전을 개발하고, ICOH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 프로그램은 4월중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

○ 논문접수 프로그램

- 주제별로 논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논문 접수 뿐 아니라

- 논문 심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 ICOH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 프로그램은 4월중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

6) 전시회 운영 및 대회 후원사 모집

○ 전시회 운영

- 50부스 규모의 작지만 실속있는 전시회 운영
- 무료 부스 제공
 - ICOH와 파트너 기관(ILO, WHO)
 - 차기대회 개최지 (아일랜드 더블린)
- 장소는 무료 제공, 참가업체는 설치비 부담
- 멕시코대회 리스트를 참고해서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참가업체 섭외
- 5월 (싱가포르)과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국제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를 접촉

○ 대회 후원사 모집

- 스폰서 모집에 ICOH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멕시코대회를 참고하여 국제 스폰서를 섭외토록 함
- 국내 기업은 사회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물 후원 추진

7) 그랜트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 참가자 지원

- 1차 회의시 협의된 대로, 공단은 공단 조성 65,000 유로와 전차대회 잔여금 12,429 유로, 뉴스레터 발행지원금 30,000 스위스프랑 범위 안에서 개발도상국 참가자 지원을 추진토록 함
- ICOH 비회원인면서 등록비 부담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운 아시아권 나라에 대한 지원은 ICOH와 협의된 예산 범위 밖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토록 함

○ 발표자에 대한 지원

- 발표자에 대한 지원은 2개 그룹으로 제한함
 - 1그룹 : 기조연설자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 2그룹 : 세미기조연설자 (숙박비, 등록비)

- 그 외, ICOH 임원과 사무국 직원은 1그룹 기준으로 지원하고 ICOH 파트너 기관(ILO, WHO)은 참가자 정책에 따라 1그룹 또는 2그룹으로 차등 적용

8) 세션 운영

- 2014년 1월 27일 현재, 국제 및 국내학술위원회 접수 세션은 84개로, 멕시코 대회 (170개) 대비 상당히 적은 규모임
- 따라서, 국제 및 국내학술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대상 적극적 홍보를 통한 세션 증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
- APOSHO 등 병행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세션도 ISC 양식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공지 필요

9) 병행 프로그램 운영

- APOSHO, 한중일집담회, WHO-CC 등 병행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와 보다 원활한 교류 필요
- WHO-CC 프로그램 및 제주도에서 서울로의 이동 관련 내용 협의
- 한중일집담회 참가자의 ICOH 대회 등록비 적용 등에 대한 대회 운영자의 의견 수렴

10) 기타

- 각 위원회 명단은 직함(prefix)없이 이름만 기재
- 2차 안내서에 “광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OSH in Mining)”을 ICOH 학술주제로 추가할 것

- 2차 안내서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 ICOH 사무국에서 프랑스어 감수
- 35세 이하 참가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참고하여 1980년 5월 3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
- 3차 실무회의는 9월중 서울에서 개최

3. 공단-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간 기술협력 협정 연장 체결

- (일시) '14.2.5(수) 09:00~13:00
- (장소)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청사 회의실
- (참석자)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관계자 등 45명
공단 이사장, 협력지원실장 등 4명

○ (행사 주요내용)

- Text Clear Meeting : 협정서 문구 수정 등
- 양 기관 대표자 인사말씀
- MOU 서명식
- 서명자 : 공단 이사장 / 인력이주부 근로감독국장
- 선물 및 기념품 교환 후 기념촬영
- 다과
- 공식 만찬

○ (협정내용 요약)

- 교육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기술정보자료 교환
- 상호 협정 이행을 위한 연락담당자 지정
- 협정 관련 비용은 양 기관의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부담
- 연장기간은 3년이며, 추후 협의하여 재연장 가능

○ (주요 논의사항)

- 자카르타에 지하철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음. 한국은 9호선이나 되는 지하철을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지하철 건설 작업도 다양한 위험이

산재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

- 건설 업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은 작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완료한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여 이들만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수 있게 했음.

: 작년은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제공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업체에게 올해부터 한국 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예방이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ISSA 예방문화위원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인도네시아 인력 이주부측도 예방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건설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는데, 관리 방법이나 벌금 제도가 있는가?

: 벌금 제도가 있으나, 엄격하지 않음. 산업안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주에 벌금을 부과. 그래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

4. 공단-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간 신규 기술협력 협정체결

○ (일시) '14.2.7(금) 08:30~14:00

○ (장소) 미얀마 양곤 Avenue64 호텔 Conference Room

○ (참석자)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관계자 등 25명

공단 이사장, 협력지원실장 등 4명

○ (행사 주요내용)

- 양 기관 대표자 인사말씀
- MOU 서명식
- 서명자 : 공단 이사장 /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감독국장
- 선물 및 기념품 교환 후 기념촬영
- 다과

- 공식 만찬

○ (협정내용 요약)

- 교육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기술정보자료 교환
- 상호 협정 이행을 위한 연락담당자 지정
- 협정 관련 비용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가용 범위 내에서 부담
- 연장기간은 3년이며, 추후 협의하여 재연장 가능

○ (주요 논의사항)

-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새마을 운동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새마을 운동처럼 산업안전보건도 각 근로자 스스로 변화할 때 더 큰 개선이 가능.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도 이미 제공.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기간은 초기 6개월이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재해가 많이 발생. 이에 KOSHA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이미 14개국에 보급. (해당 어플을 보여주며 1,000문장을 제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OSH는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노사정이 합심해야만 가능한 과제임을 강조.

○ (미얀마 방송국[MITV] 인터뷰)

- 이번 MOU가 미얀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이번 협정으로 미얀마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지키고, 근로자가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 또한 아시아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향후 기술협력의 모범이 되는 협력이 되기 위해 노력. 모든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